

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6. 3. 28.
- 제공자 : 농림부 농촌진흥과
- 과 장 : 석 희 진
- 사무관 : 이 영 길
- 전 화 : 500-1970

이 자료는 2006년 3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민대통합 추진”

- 농림부는 3.29일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 언론계, 농협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체, 마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림부 장관은 “도농교류활성화의 핵심인 1사1촌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 또한 “DDA나 FTA 협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농업·농촌문제를 한 단계씩 풀어 나가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토론회에 앞서 도농교류 우수마을인 강원도 춘천 솔바우 마을
홍성수 대표와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박광용 차장의 사례발표를
통해 기업체와 농촌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제1주제인 「2006년도 농촌사랑 1사1촌 운동 추진계획」 발표한
농협중앙회 허선구 상무는 “농촌사랑운동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도농상생 이념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 제2주제인 「농촌사랑 1사1촌 운동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한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만불 시대로 가는 승부처는
농업·농촌에 있으며, 이제 기업이 농업·농촌 발전의 동반자·
후원자가 되어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 도농교류 및 1사1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
2. 송암리 마을 및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도농 교류 현황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

□ 개최목적

-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를 민간주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한 사회적, 국민적 대통합방안 모색

□ 토론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06.3.29(수) 14:00~16:00, 농림부 대회의실
- 진행계획
 - 1사1촌 우수사례 발표 : 마을1, 기업체 1
 - * 춘천 솔바우 마을,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 제1주제 발표 : "2006년도 농촌사랑 1사1촌운동 추진계획"(농협)
 - 제2주제 발표 : "농촌사랑1사1촌운동중장기 발전방향(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
 - 토 론(농림부 장관 주재)

□ 참석자 및 토론자(안)

- 정부(4명) : 농림부 장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과장,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장
- 학계 및 언론계(4명) : 서울시립대학 김용근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원 민승규 박사, 문화일보 박학용 경제부장
- 자매결연 관련자(5명) : 농협중앙회 허선구 상무, 한국농촌공사 박종유 도농교류센터장, 전경련 이병욱 산업조사본부장,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박광용차장, 춘천 솔바우 홍성수 마을대표

<강원 춘천 사북면 송암리-호텔신라 >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이 농촌마을에 무조건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길 바라면 100% 실패합니다. 농촌도 도시민에게 상대적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 상생정신만 가지면 1사1촌 교류활동은 저절로 활성화됩니다.”

◆오고 가면 길이 열린다

2004년 9월 호텔신라와 자매결연을 한 후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강원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마을은 요즘 흥이 절로 난다.

신라호텔과 자매결연 이후 연간 직거래 금액이 2004년 1억3,000여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0억여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마을 특산물을 주 3회 납품하고 추석과 설날 등 2대 명절엔 따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마을 총 농산물 판매액의 40%에 해당되는 액수. 더구나 신라호텔측이 올해부터는 ‘자매결연 마을 농산물 30% 더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직거래금액이 3억여원 정도 더 늘어난 1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라호텔측은 명절때에는 호텔내에 있는 명품관에 송암리 마을 농산물을 전시해 마을주민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노력에 화답하고 있다.

이에 보답하듯 송암리 마을도 우수 농산물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마을 전체 경지의 20%에 해당하는 10ha에 오리농법을 도입했다. 오리 방사도 호텔 직원들이 일손돕기를 하러 온 5월28일 마을축제로 열었다. 여기서 생산된 쌀은 전량 호텔신라에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에는 서울 장충공원에서 공동으로 불우이웃 400명에게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또 농산물 판매가격에서 0.5%를 기금으로 공동 적립, 겨울철에는 마을의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방한복과 장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올해도 변함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받는 만큼 돌려준다

호텔신라 직원들은 일손돕기 또는 농사체험을 위해 부서별로 돌아가며 매주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송암리 마을은 보답 차원에서 지난해 초여름 마을 공동소유의 텃밭 500평을 주말농장용으로 호텔 직원들에게 무상 임대했다. 호텔 직원들은 여기에다 감자나 옥수수 등을 심고 가을철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인근 30만평의 임야도 자체 개발해 직원들이 산나물과 자연산 송이 채취, 여름계곡 캠프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한번에 12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체험관과 찜질방을 완공하기도 했다. 마을을 찾아오는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축비용도 마을 자체에서 충당했다. 송암리 마을은 이 모든 것을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직원들이 찾아오는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 전체가 축제의 장터로 변한다.

송암리 이장 홍성수씨(44)는 “1사1촌 결연의 기본 정신은 도·농상생”이라며 “이를 위해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을 시설들을 개량했고 받는 만큼 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매결연단체 현황

송암리마을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140. ☎033-244-9807.
<http://solbau.invil.org>

호텔신라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 ☎02-2230-3221.
www.shilla.net

● 자매결연 주요일지

- 2004년 9월 : 자매결연 행사
- 2004년 5월 : 공동으로 서울에서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
- 2005년 5월 : 친환경농법 도입 기념, 호텔직원 초청 오리방사 행사
- " 6월 : 체험관 및 찜질방 개장 기념 행사
- " 9월 : 호텔신라에 추석 특산물 공급
- 2006년 1월 : 호텔신라에 설날 특산물 공급
- * 매주 3회 호텔신라 구내 식당에 마을 농산물 공급
- * 호텔신라 직원들은 매주 토요일 부서별로 마을방문, 주말농장에서 농사체험

● 성공법칙

- 마을주민들 모두 하나가 돼 움직인다
- 자매 기업체에도 경제적 혜택을 준다
- 다양한 불거리·놀거리·휴식처를 제공한다
- 우수 농산물 생산에 주력한다
- 동등한 입장에서 자매 기업체를 대한다

● <인터뷰> 김명희 호텔신라 대리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은 우리 농업·농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호텔신라의 1사1촌 자매결연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명희 총무팀 대리는 “지난 1년간 자매결연 활동을 지원하면서, 농촌을 이해하는 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송암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

회사 내에서 부녀회장으로 통한다는 김대리는 “1사1촌 자매결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인적교류 그 자체”라며 “호텔신라도 자매마을과의 접촉이 잦아지고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면서 농산물 직거래 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금은 회사 임직원 자녀들이 ‘언제 시골에 가냐’고 먼저 묻고 있다”며 “이런 유대감이 형성됐는데 자매결연이 일시적 행사로 끝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자매결연을 했거나 추진하는 기업체나 단체들에 대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주려 하지 말고 기업체 규모나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교류활동을 펼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삼성전자 천안사업장당진-영전마을>

“이웃처럼, 형제처럼 서로 허물없이 돕는 사이가 됐습니다.”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1리 영전마을(이장 박정일)과 삼성전자 LCD총괄 천안사업장(총괄사장 이상완)은 2005년 6월 30일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의 주선으로 형제의 인연을 맺은 후부터 끈끈한 정을 나누오고 있다.

● 마을주민 얼굴에 ‘웃음꽃 가득’

정월대보름(12일)이 가까운 2월 5일, 영전마을 노인정은 활기에 찬 동네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어르신들은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에서 10일 열리는 대보름 잔치에서 오랫동안 갈고닦은 짬뽕공예 작품을 선보이려 손을 분주히 놀리고 있었다. 부녀회원들도 대보름잔치에서 농악 공연으로 흥을 돋워주기 위해 매일 밤 풍물연습에 바쁘다.

주민들은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영전마을은 75농가 268명이 쌀·고구마·배·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촌마을. 영전마을이 천안사업장과 결연 이후 판매한 농산물은 고구마 10kg 630여 상자(950만원), 배 7.5kg 350여 상자(825만원). 박정일 이장(50)은 “지난해 추석 무렵 생산된 배 500여 상자 중 60% 이상이 천안사업장에서 팔렸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면서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고구마·배·버섯 등의 주문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사업장은 추석과 설 무렵 구내식당에 농산물 판매코너를 마련하고, 지역 내 복지시설에도 영전마을 농산물을 전달하고 있다. 마을에서도 택배비를 할인해주고, 덤을 더 얹어주는 등 ‘고객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영전마을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마을 쌀의 판로 확대다. 박이장은 “지난해 9월 구내식당 주방장 등이 마을을 방문했고, 이미 8월부터 매달 1t씩의 쌀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올해 구매계약이 성사되면 매주 1t씩, 연간 52t의 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촌사랑은 화초처럼 매일매일 가꾸는 것”

이런 성과 뒤에는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삼성전자 천안사업장·농협중앙회 등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굳건한 유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박이장은 “천안사업장의 담당직원과 거의 매일같이 서로 전화를 걸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칭찬했다.

천안사업장에서 1사1촌 자매결연을 담당하는 차효진씨(사회복지사)는 “천안사업장은 전 직원 6,100명 중 3,000여명이 160개 봉사팀에 소속돼 있다”면서 “영전마을이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이 호박·고구마 수확, 배나무 가지치기 등 일손지원과 농촌체험 등

에 스스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돋보이는 것은 지난해 10월8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초청해 벌인 농촌체험 행사. 천안사업장 직원들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50명은 영전마을에서 고구마 캐기를 도운 뒤 황토염색과 짚풀공예, 풍물강습 등을 통해 농촌의 정과 흥겨움을 만끽했고, 도비도에서 갯벌체험까지 즐겼다. 직원들은 겨울에도 일손돕기에 나서 올해 1월14일 편무량씨의 과수원에서 배나무 가지고르기를 도왔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9일 천안사업장의 초청을 받아 공장견학과 온양 민속박물관, 퍼포먼스 공연 '점프'를 관람하기도 했다.

● 오가는 교류속 '제2도약' 꿈꿔

영전마을은 2002년 농협 팜스테이마을, 2005년 녹색체험마을에 선정되는 등 매년 3,500~4,000명이 다녀가는 유명한 농촌체험마을로 자리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은 천안사업장과의 교류가 '서로 주고받는' 지속적인 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4월 말께 배꽃축제를 열고 천안사업장 직원들과 직거래 소비자 등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배 재배농가 김혜재씨(52)는 “마을 배 작목반을 중심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공 법칙

- 꾸준한 대화와 교류
- 농촌의 멋과 흥을 선사한다
- 농산물 덤주기는 기본-인정이 담겨야.
- 철저한 사후관리

● 자매결연단체 현황

당진 영전황토마을 :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1리

☎041-356-8892, 011-451-8892.

<http://youngjeun.farmstay.co.kr> <http://youngjeon.invil.org>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충남 천안시 ☎041-529-6999, 011-9943-2722.

www.samsung.com

● 자매결연 주요 일지

2005년 6월30일 결연식

9월2일 고구마캐기 지원

10월8일 외국인 자매마을 체험활동

10월15일 임직원 가족 고구마캐기

12월9일 자매마을 주민 사업장 초청 및 공연 관람

2006년 1월14일 배과수원 일손돕기

2월10일 천안사업장 대보름맞이 초청행사